

“전국단위로 신도회 조직 추진”

기사 모임 '선정회' 결성하는 법장 스님



공소사 초청법회서 법문
혜거 서울 금강선원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공소사에서 열리는 법회에서 법문을 한다. (031)246-1001



구파벌역 인근 법당 이전
청운 서울 관운장사 주지는 15일 고양시 지축동 구파벌역 인근으로 법당을 이전한다. (02)387-8529



경기불교문화원 개원식
김태재 경기불교문화원장은 13일 오후 3시 수원 팔달구에 경기불교문화원을 개원한다. (031)251-1083



정어 스님 초청 수계
고해성 부산지방경찰청 경범죄 회장은 8일 경찰청내 무궁화법당에서 정어 스님을 법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7천여 교사에 ‘...한국사’ 배포

교육문화재단 오태환 이사장



“우리의 뿌리와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익인간의 전통사상 위에 자유와 평등의 서양사상은 없다면, 혼돈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나침반이 되리라 믿습니다.”

고준환 교수(경기대가 집필한 <반민란 대륙 민족의 영광사> 하나 되는 한국사)를 최근 재발간, 사재를 털어 배포하는 한국교육문화재단 오태환(사진) 이사장. 오 이사장은 “이 책을 전국의 대학 및 역사교사 7천여 명을 비롯 방송관계자들에게 무료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홍영선 제주불교봉사회장

제주 여성단체협 회장에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세미나, 전문가 초청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계획입니다. 또 제주에는 30개가 넘는 여성단체가 있지만, 현재 시업의회에는 13개 단체만이 가입돼 있어 회원단체가 늘어나도록 조직관리에 힘쓸 것입니다.”

1일 제3대 제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제주불교사회봉사회 홍영선 회장(사진)은 우선 7월초에 열리는 여성주간 행사부터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각 여성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선정회 창립에 앞서 법장스님은 지난 3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고문으로 추대됐다. 평소 불교계 대소사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오면서, 어려운 이웃에도 남달리 관심을 가져온 스님의 열정이 필요하다는 참여연대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족하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가 힘을 보태 생각입니다.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하고 불교

법문집 발간... 수익금 생명나눔회에

“불교를 생활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도들의 활동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 단위 신도회 조직을 통해 신도들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포교와 신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수석사 주지 법장스님(사진)은 14일 거사들의 신도단체인 선정회 창립을 앞두고 흥성, 서산, 당진 등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각 지역에 도 지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스님은 빠른 시일 내에 여신도들의 신생활도 창립할 생각이다

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쁜 움직임 속에서도 법장스님은 전국 곳곳을 다니며 법문한 내용을 모아 엮은 <고통을 모으러 다니는 나그네> (불광출판사)를 얼마 전 펴냈다.

“불자들이 불교를 바로 아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가당찮은 줄 알지만 단지 부처님 말씀을 제가 대신해 전하는 것이라고 봐주면 좋겠습니다.”라며 법장 스님은 책 판매수익금 전액을 생명나눔선교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영우 기자

“한국불교인식 새롭게 할 터”

美 하버드·프린스턴대서 강연 지광 스님

서울 능인선원장 지광스님(사진)이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에서 한국불교에 대해 강연하기 위해 14일 출국한다. 지광스님의 이번 강연은 하버드대 동양학부 소속 불교연구커뮤니티와 프린스턴대 종교학부의 초청에 의한 것이다.

“지난해 하버드대의 초청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미국 지성인들이 한국불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이번 초청



뉴욕교민 위해 두차례 법회도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뤄진 것입니다.”

지광스님은 17일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연한 뒤, 18일 하버드대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이 두 강연에서 스님은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아직도 티베트나 일본, 중국 불교에 비해 한국불교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지광스님은 하버드와 프린스턴대 강연과 함께 스탠포드대와 버클리에 강연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는 대학 강연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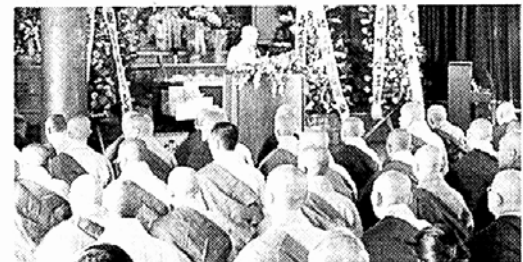
한편 지광스님은 하버드와 프린스턴대 강연에 이어 21일 뉴욕에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법회도 가질 예정이다. 뉴욕법회는 지광스님의 미국강연소식을 접한 교민들과 뉴욕 불교사원연합회의 초청에 의한 것이다.

지광스님은 “우리 교민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 포교거점을 마련해 한국불교 포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mwihan@buddhapa.com



군불총 회장 이종욱 대장 전역법회

국군불교총신도회 초대회장인 이종욱(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대장의 전역법회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호국원공사에서 봉행됐다. 이종욱 대장은 “힘든 군생활 속에서도 신생활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군부자들에게 당부했다. 사진은 전역법회를 마치고 원광사 앞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봉선사 능엄학림 2기 졸업식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일면는 3월 29일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청풍루에서 능엄학림 제2기 8명에 대한 졸업식을 거행했다. 졸업식에는 봉선사 주지 일면 스님과 주지 일면 스님, 가산 불교연구원장 지관 스님, 통도사 성파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일면 스님은 졸업차사(사진)에서 “작은 성과물이나 얼마 되지 않은 실력 취득에 만족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자비신행회 한꽃장학금 수여식

보성 대원사 자비신행회(회주 현정)는 3월 30일 자비신행회 법당에서 한꽃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교생 24명에게 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혜 학생은 광주교사불자회 추천으로 선정됐다. 자비신행회 회주 현정 스님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불자교정인련 춘천교도소 위문

전국불자교정인련협의회(회장 오희창)는 3일 춘천교도소 관음도량에서 재소자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오희창 회장은 “스스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맑고 밝은 마음으로 정진하자”고 말했다. 법회후 불자교정인련협의회는 재소자 불자 4백여명에게 떡과 다과를 제공했다. 오희창 회장이 재소자 불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불자들의 수행·복지도량으로”

지장사 포교원 개원 혜인 스님



신행과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는 도량으로 가꿔나가고자 시민선방개원, 봉사단 결성, 신행 상담 등의 활동을 벌인다.

스님은 “지옥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지장보살의 큰 원력을 사바세계에서 실천하는 도량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불자는 마음에서 잠시라도 수행을 놓지 않고 불법

선방 개원·봉사단 결성 추진

서울 우이동에 불심사를 창건한 후 10여년 동안 포교활동을 펼쳐온 혜인 스님(사진)이 불자들의 신행은 물론 수행, 복지, 포교를 아우르는 종합도량을 7일 개원했다. 강북구 수유1동 472-463번지 영진빌딩 2층에 마련된 지장사.

혜인 스님은 지장사를 누구든지 와서 기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시민들과 불자들이

을 온몸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혜인 스님은 미국 시카고 불심사에서 법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국내에 들어와 불심사를 개원, 오로지 포교활동에 전념해 왔다. 또 스님은 ‘이젠 마음 비우거라’ ‘내 마음의 풍경’ 등 수필집을 발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a.com

“불교 중흥 위해 법보시 운동”

대만 불타교육기금회 이사장 정공 스님



남의 <화엄경> 강의 등을 담은 DVD를 동국대와 봉선사, 중앙승가대, 강원대에 법보시했다.

중국 정토학과 화엄학의 대가이기도 한 정공 스님은 “한대 이후 중국 문화와 하나가 돼 온 불교가 150-200년 전부터

불서 1만여권 동국대 등 기증

대만을 비롯해 호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에 지부를 둔 대만 불타교육기금회 및 정종(淨宗)학회 이사장 정공 스님(사진 오른쪽)이 방한, 1일 동국대에서 송석구 총장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불타교육기금회는 경전류를 영인해 세계 각국에 보시하는 단체로 이번에 <간행대장경> 등 모두 1만여 권 분량의 불서와 정공 스

서양 기술과 문화, 사고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법보시 운동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다.

1927년 중국에서 태어난 정공 스님은 59년 대만 입제사에서 출가했으며 중국정토종실천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주로 호주에 거주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a.com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노인을 위한 아름다운 집 평생기도처 개원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 정진으로 마음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 요양원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건물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 하신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복지 이념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복지전문가로 구성된 노인복지의 전문화와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입방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자광원 조감도

위치 및 시설개요

- ◆ 소 개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 대 상 : 만 70세이상
부부 또는 개인방 거처하시고 싶은 모든불자(남녀불문)
노원스님, 개인방 거처하시고 싶으신분
- ◆ 정 원 : 약 30명
- ◆ 부대시설 : 상담실, 진료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목욕탕, 미용실, 법당, 식당, 일광욕실, 정원, 산책로등
- ◆ 연 락 처 : 전화 031) 759-5310, 5320
FAX 031) 759-4209
E-mail : jkwkey@ko met.net

개원에정일 2002년 4월 (일자 변경될 수 있음)

사회복지법인 “부처님마을 자광원” (노인요양시설)